

# 목장교회 나눔지

2023. 12. 17. 주간

##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무엇인가?
2.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동물, 곤충, 스포츠 등)은?
3. 23년을 시작하며 계획했던 것 중,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텍 음 성 가	아침 안내 눈 앞 가리듯 (지 201장)	찬 송 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새찬 257장)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지 318장)		천사 찬송하기를 (새찬 126장)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지 358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새찬 545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지 408장)		주님께 영광 (새찬 165장)

##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설 교 내 용	Just like Jesus(예수님처럼) 57. 가장 의심 많은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요한복음 20장 19-29절
	1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시대의 명작을 남긴 샤를 드 푸코(Charles de Foucauld, 1858-1916). 푸코는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지만,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모로코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진실한 신앙에 충격을 받는다. 비록 헛된 신을 믿는 이교도지만, 그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에 도전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어려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고 푸코를 사제의 자리로 이끌었다.
	2 푸코는 수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답한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볼드냐? 그것이 결국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신앙의 테스트,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 십자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컸던 탓일까? 제자들은 다시 살아 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음의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다.
	3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여겼다(눅 24:11). 본문은 그 이유를 두려움에서 찾는다(요 20:18-19).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제자가 다 죽을 각오를 했다(마 26:35. 막 14:31). 그러나 십자가 죽음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과 다짐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실제로 경험한 십자가의 처참함 앞에, 두려움 앞에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다.
	4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분으로 여겨질 때, 내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에 잠식된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은신처를 직접 찾아오신다(19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로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평강]이었다.

5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다(20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다. 그래야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외쳤다.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평강이 넘쳤다.

6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은신처를 찾아오셨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 말이다. 바로 디두모 도마이다(24절). 많은 제자의 설득에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25절). 라고 답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

7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예수님의 권유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결기까지 보여준 그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이러한 의지가 꺾일만큼 도마에게 십자가 죽음은 현실적인 문제였고 두려움이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8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다(26절).

8 그리고 말씀하신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27절). 의심 많은 제자, 수많은 증언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 오셨다. 도마는 이제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의 의심보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고 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대면하고 있다. 도마는 이렇게 고백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28절).

9 도마는 실은 간절했다. [주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왜 제 친구들에게는 찾아오셨는데, 왜 저는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2천 년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경험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기독교를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도마와 같이 비록 의심은 많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도마와 같은 우리 세대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29절).

10 의심 많은 도마와 같았던 푸코. 그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유대인이 무시하는 나사렛 지역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었다. 높은 권좌에 앉아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신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푸코는 더 이상 안락한 자신의 은둔소에만 머물 수 없었다. 사하라 사막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원주민들과 그리고 거기 주둔해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지역민이 쏜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한다.

11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신다. 우리가 주님께 신원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최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누가 제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창 자국에 넣어보아라. 도마야, 나의 못 자국난 손을 만져보아라.” 실은 그 손은 육신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다. 여러분의 삶에 회의와 두려움이 있다면 도마를 찾아온 주님을 만남으로 그 방향의 종지부 찍기를 원하다. 믿음의 마침표를 주님 안에서 갈무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 전 제 권 제 매 점검질문 \*설교의 주요 내용 점검

1.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말씀은?
2.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했는가?
3.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은?

**적용질문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

1.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2. 도마처럼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누어 보자.
3. 나의 삶의 부분 중 도마처럼 의심하며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고 결단해 봅시다.

**회원 회원들 간의 기도안 돌봄으로 섬김(15분/온라인모임 10분)**

건강한 목장교회가 되도록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한 일과 기도할 일(부담, 근심, 고통스러운 일 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공동기도제목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공동기도제목은 주보 참고/중보기도부장이 마무리기도).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온라인모임 7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목장이 선택한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목장교회사역** | 비전부장, 중보기도부장, 전도부장, 선교부장, 사회봉사부장, 교육부장, 기타

※ 교회사역 소개

1. 2024년 1학기 개강 일정안내
  - 자매마을장 수련회 2/15(목)~16(금)
  - 형제/부부/직장자매 마을장 수련회 2/16(금)~17(토)
  - 목자연합부흥회 3/3(주일)
  - 자매목자훈련모임 개강, 지구별 향수예배 3/6(수)
  - 형제/부부/직장자매목자훈 련모임 개강 3/9(토)
2. 현장예배 회복 캠페인
  - 현장예배 회복 캠페인 'Together Now 지금 함께해!'가 12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 12/24(주일) 환우들에게 혈액 공급과 치료비를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가 시작됩니다. 기념품구입 또는 치료비모금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복지선교부/ 031-710-9312, 9450)
4. 2023 지구촌교회 성탄축제
  - 일시: 12/22(금) 오후8시, 수지/분당 본당
  -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3 성탄축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가 진행됩니다.
  - 성탄축제(현장)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5. 성탄절 찬양예배
  - 일시: 12/25(월) 오전 8시, 10시, 낮 12시 수지/분당 본당
  - 셔틀버스는 주일과 동일하게(1-3부)운행, 주일 셔틀버스 시간표 참고

North Korea	◆ 통일비전 모임 -일시: 매 주일 오후3시20분, 장소: 분당 209호
Next Generation	◆ 크리스마스 파워웬즈데이 워십투나잇 -일시: 12/20(수) 오후 8시, 장소: 분당채플 8층 본당
New Family	◆ 아름예배부 분당채플 목자 모임(문의: 031-710-9346)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목원을 목양할 목자모집합니다.(매주일 오전 10시, 12시)
Great Commission	◆ 세계를 품는 기도 책자 발송 안내(문의: 031-710-5940~2) -가정으로 세계를 품는 기도 책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Global Church	◆ 글로벌목장센터 성탄절 침례식 -일시: 12/17(주일), 오후 5시30분, 장소: 수지채플
Godly Leaders	◆ 2024 3천 중보 용사 한맘기도 헌신자 모집 -'한맘기도' 헌신 작성서를 작성하여 안내 데스크 수거함에 제출(수지 1층, 분당 8층)

**지구촌교회 킹덤 프로젝트**

- 01 M52오병이어 프로젝트**: 힘겨워하는 이웃을 사랑과 물질로 함께 돕자
- 02 대한민국피로회복 프로젝트**: 피로에 지든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자
- 03 10만 감사 프로젝트**: 침실에서 감사로 일어나자, 오늘 감사로 내일의 미래를 바꾸자
- 04 느헤미야 프로젝트**: 1세대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벽을 완성하자
- 05 Just Like Jesus 프로젝트**: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 06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프로젝트**: 지구촌공요, 느헤미야기도회

**원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온라인모임 2분)**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 사역메모 ]**